

하위문화맥락에서 본 패션형태의 변화(2) - Teddy Boys를 중심으로 -

※ 본 논문은 2001년도 한성
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한성대학교 의생활학부
의상디자인전공 교수

양 미 경 *

목 차

- I. 서론
- II. 하위문화 스타일의 배경
- III. 테디 보이(Teddy Boys) 스타일의 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

I. 서론

하위문화는 금지된 형태(의상적 행위적 코드의 위반, 위법 등)로 금지된 내용(계급의식, 차별의식)을 표현하는 불경스런 접합들이며, 종종 그 의미에 있어 '부자연한 것'으로 정의된다.¹⁾ 하위문화는, 하나 또는 다른 보다 큰 문화적 네트워크 내에서의 부분 집합 즉 보다 작은 보다 국지적인 차별화된 구조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빈틈없는 경계와 특별한 행위와 결합되는 뚜렷한 형태들, 초점적 관심들과 특정 영역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하위문화 집단은 나이와 세대에 의해서 구분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청년 하위문화라고 부른다. 청년 하위문화는 사회적, 문화적 삶의 영역 위에 형성되며, 부모 계급 문화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이다. 어떤 하위문화는 특별한 역사적 순간에 만 나타나며, 가시적이며 자신들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확인되고 이름이 붙여진다. 그들은 잠시동안 공중의 주의를 끌며,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너무 널리 확산되어 그들만의 특성을 잃게 되는데, 테디 보이의 독특한 의상, 스타일, 초점적 관심, 환경은, 독특한 집단으로서, 전체 노동 계급 문화의 광범위한 패턴들과 평상적 노동계급 소년들에 의해 보여지는 보다 확산된 패턴들과는 차이가 있다.²⁾ 20세기 들어 등장

1) Dick Hebdige,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Routledge, 1979, pp. 90-91.

2) John Clarke, Stuart Hall, Tony Jefferson & Brian Roberts, "Subcultures, Cultures and Class: A theoretical overview", in S. Hall et al. (eds.),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3, pp. 13-14.

3) 김현섭, 「서태지 담론」, 서울 : 책이있는 마을, 2001, p.33.
 4)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London : V & M Publications, 1996, p.14.

한 세대의식과 더불어 최초로 성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 틴에이저라는 개념을 갖게 한 테디 보이³⁾들은 최초로 인식된 영국 청년 무리들의 성원들이며, 그들이 입은 복장 때문에 뉴 에드워드안으로 알려진 집단이다.⁴⁾ 전후 여러 청년 하위문화 스타일 중에서도 테디 보이 스타일에의 관심은 최초의 청년 하위문화 스타일의 생성에 관한 것이다. 즉 어떻게 계급과 세대적 요소가 독특한 하위문화 집단 스타일의 발생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집단에 필요한 재료들이 가시적으로 체계화된 문화적 반응의 형태로 구성되어지고 전유되어지는가의 세대적 스타일에의 의문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더구나 청년 하위문화의 주류 패션에의 도전과 영향은 21세기 들어 더욱 지대해졌으며, 하나의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힘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때, 하위문화 스타일의 생성과 의미의 분석은 주류 패션의 발생과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00년대에 시발되어진 청년 하위문화 스타일의 제반 변화 양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 본격적인 청년 하위문화 스타일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디 보이 스타일(Teddy Boys Style)을 분석하고자 목적하였다.

II. 하위문화 스타일의 배경

A. 하위문화 스타일의 생성

권력의 정점에 서있지 않은 집단이나 계급은, 문화 내에서 그들의 종속적인 위치나 경험을 표현하고 실현할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계급의 위치와 관심을 매우 적절하게 반영하는 구조들과 의미들은 그 지배 사회적 문화적 질서로서, 그 지배 문화는 문화로서 그 자체를 대표하며 다른 문화를 정의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른 문화적 형태들은 지배적 질서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투쟁으로 돌입하기도 하고, 수정이나 협상, 저항, 혹은 그것의 지배 즉 그것의 헤게모니를 전복하려 추구한다.⁵⁾

2차 대전 후 계급관계의 결정적 변화는 전후 생산이 재조직되고 현대화되어지는 방식과 노동의 분화, 직업 문화, 그리고 노동계급의 반응, 방어, 저항의 형태에 의한 영향이다. 전쟁과 전후 상황은 양 대전 사이에서 이미 준비가 갖추어진 변화들을 가속화시킨 결과, 오래 된 산업과 새로운 산업, 오래 된 지역과 새로운 지역 사이의 틈이 확장되었고, 부분적이고 무계획한 합리화의 영향은, 기술과 노동의 분화에서, 지역의 경제 생활에서, 심각하고 불균형하였다. 노동 계급 가족의 역할과 위치가 와해되었으며, 계급 문화의 버팀인 견고한 일련의 관계와 지식, 사물, 경험의 네트워크의 붕괴를 결과하였다. 그러므로 노동 계급 하위 문화는 종속 계급의 사회 문화적 계급 관계의 수준에서 형성되는 문화이며,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들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젊은이를 위한 영역을 쟁취하며, 그 지역에서의 '영토'를 구획하고 전유하는데 기여한다. 노동 계급 하위문화의 형성에 경제적 기반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풍요로운' 시기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 성인들 보다 십대들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마음대로 써버리는 소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만이 하

5) John Clarke, Stuart Hall, Tony Jefferson & Brian Roberts, op.cit., pp.10-12.

위문화 스타일을 만든 것은 아니며, 특히 젊은 소비자 시장의 성장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청년 산업이 생 재료들과 상품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들은 독특한 스타일의 구성으로 집단들에 의해 이용되었는데, 단순히 그것들을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상품들의 특별한 선택을 행동적으로 구성하여 스타일화 하였으며, 기존의 의미와 용도로부터 다른 의미와 용도로, 이들을 파괴하고 변형시키는 것을 포함하였다. 그들의 가시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유되고 입혀진 (혹은 들려진) 사물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양식화(stylization)의 행위 즉 행위들과 예측을 지닌 대상들의 행동적 체계화로서, 그것은 '세상 속의 존재'의 응집적인 독특한 방식의 모양과 형태로 체계화된 집단 정체성을 만든다.⁶⁾

6) Ibid., pp.35-54.

햅디지는 그가 다루어온 하위문화들은 모두가 지배적인 노동계급과는 먼 공통적 모양새를 공유하고 있으며,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의 문화들이라고 말한다. 하위문화가 '비밀스런' 정체성을 드러내고 금지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튀는 소비 의례를 통해서 즉 스타일을 통해서이며, 하위문화를 보다 정통적인 문화 형성물로부터 떨어져 구분 짓는 것은 하위문화에서 일용품들이 이용되어지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는 브리콜라지(bricolage)의 개념을 하위문화적 스타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Savage Mind 에서 Levi-Strauss가 원시민족들에 의해 (미신, 마술, 신화) 이용되어진 주술적 모드가, 사물들 사이의 연결 체계로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개념으로서, 이들 연결의 주술적 체계들은 공통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 요소들이 그들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즉흥적 콤비네이션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적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⁷⁾ 따라서 단순히 전유되어 입혀진 사물이 청년 하위문화 스타일이 되는 것이 아니며,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양식화(stylization)의 행위로서, 독특한 방식으로 체계화된 집단 정체성을 지닌 모드들이 연결체계로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7) Dick Hebdige, op. cit., pp.102-106.

B.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하위문화들이 표상하는 도전은 직접적으로 발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스타일 속에,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반대들은 숨겨지고, 모순들은 외양의 심오하게 피상적인 층위 즉 기호들의 층위에 과시되어진다. 하위문화 스타일은 의미화(signification)를 포태하고 있다. 그것의 변형들(transformations)은 규범화(normalizations)의 과정을 방해하면서 '자연에 대항하여' 나아간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침묵의 다수(silent majority)를 성나게 하고, 통일과 응집의 원칙에 도전하며, 합의의 신화를 반박하는 말을 향하는 제스처들이며, 움직임들이다.⁸⁾

8) Ibid., pp.17-18.

하위 문화에서 스타일 창조의 발생적 원리는, 집단이 사용하는 사물과 그들의 용도를 제한하고 구조짓는 예측들과 행위들 사이의 호혜적 효과이며, 지배문화 코드가 이들에 부착한 많은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 방식으로 극복하고 협상하고,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빌려오고 재생된 '조각들'을 새로운 독특한 스타일적 앙상블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발생한다. 상징적 대상물들 즉 의상, 외모, 언어, 의례 행위,

상호작용의 스타일 음악이, 집단의 관계 상황 경험과 함께 통합(unity)을 이루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표현적 형태로의 결정화(crystallization)는 집단의 공공적 정체성을 정의한다. 상징적 측면은 사회적 토대로서 집단의 예측, 행위, 구조, 경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으며, 하위문화 스타일은 집단관계와 행위들, 맥락의 내적 구조에 기초한다.⁹⁾

9) John Clarke, Stuart Hall, Tony Jefferson & Brian Roberts, op.cit., p.56.

하나의 하위문화 스타일이 하위문화 성원들에게 의미화하는 것, 즉, 독특한 하위문화 상상블 속에 재조립되어진 전유된 대상들은 집단생활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표현하고 공명하도록 만들어진다. 선택된 대상들은 본질적으로나 적응된 형태에서, 하위문화의 촛점적 관심들, 행위들, 집단구조, 집합적 자기 이미지와 상응된다. 그들은 하위문화 성원들이 지니고 반영하는 중심적 가치들을 볼 수 있는 대상들이다. 대상과 의미는 합하여, 하나의 기호를 구성한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 내에서, 그러한 기호는 담론의 독특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조립되어진다. 그러나 동일한 전반적인 기호의 레퍼토리를 사용하여, 의미있는 대상을 그 담론내의 다른 위치에 재위치시킬 때, 혹은 그 대상이 다른 전적인 조합 속에 위치되어질 때, 새로운 담론은 구성되고, 다른 메시지가 실려진다. 모든 상품들은 사회적 용도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들은 문화적 기호이다. 이들의 의미는 고정되고 '자연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지배문화가 그것의 용도로 전적으로 전유했기 때문에, 상품에 기인하는 의미는 그것이 표현할 수 있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된다. 실제로 문화 체계에서 '자연적' 의미란 없다. 그들은 그것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사회적 용도에 따라서, 의미의 문화적 코드로 배열되어졌기 때문에 단지 의미할 뿐이다. 이처럼 상품이 표현하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의미 또한 사회적으로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재의미화(re-signification)는 많은 다른 방법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하위문화가 '청년 시장'의 상품과 재료들을 스스로 의미 있는 스타일과 외양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의 방식은 하나의 의미 체계로부터 빌려온 사물을 하위문화 용도를 통하여 하위문화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된 다른 코드로 혼합하여 주어진 의미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고, 다른 방식은, 부가에 의해 다른 사회적 집단에 의해 사용되거나 만들어진 사물을 수정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의미를 강화하거나 과장하거나 고립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집단의 성원들만이 열쇠를 쥐고있는 '비밀스런' 언어나 코드에 따라서 사물을 혼합하는 것이다.¹⁰⁾ 테디 보이들이 사용했던 방식은 부가에 의해 다른 사회적 집단에서 사용되거나 만들어진 스타일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의미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상류사회에서 입던 에드워드안 스타일을 채택하여 장식을 부가하고 수정하여 그들만의 스타일을 구성하였다.

10) Ibid., pp.55-56.

의미화된 스타일 즉 의도적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질서이다. 그것은 가시적 구성 즉 담재된 선택을 표상한다. 그것은 그 자체에 주의를 끌며, 그 자체가 임혀지게 한다. 이것이 하위문화의 가시적 상상블을 주변문화와 구별시켜주는 점이다. 그것은 명백하게 꾸며낸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코드를 과시하거나, 적어도 코드들이 이용되거

11) Dick Hebdige, op. cit., pp.101-102.

나 남용되기 위하여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굵어모아진 것이라기보다는 생각되어진 것이다. 함축적인 차이(difference)의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요란한 하위문화들의 스타일 뒤에 있는 포인트이다. 그것은 모든 다른 의미화들이 그 밑에 배열되어지는 상위의 용어, 즉 모든 다른 메시지들이 통하여 말하는 메시지이다.¹¹⁾ 이것이 테디 보이 스타일의 표면들 위의 코드 속에 새겨진 숨겨진 메시지들을 구별하고, 그들이 해결하거나 감추려고 설계되어진 의미들을 분석함에 있어서의 전제이다.

Ⅲ. 테디 보이(Teddy Boys) 스타일의 분석

A. 테디 보이 스타일의 생성

요란한 하위문화들은 정의에 의하면 일련의 상상적 관계들을 표현한다. 그들이 구성되어지는 원료는 현실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그것은 하위문화의 개별적 성원들에게 다양한 통로 즉, 학교, 가족, 일, 미디어 등을 통하여 매개되어진다. 게다가 이 재료는 역사적 변화에 부합된다. 하위문화들의 '예들은' 일련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특별한 문제들과 모순들에 대한 '해법'을 나타내는데, 테디 보이 '해법들'은 그들을 기존의 문화적 구성들(이민문화들, 부모문화, 다른 하위문화들, 지배문화)과의 관계 속에 다르게 위치시켰던 다른 결합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났다. 노동계급으로부터 배제되고 분리된, 비숙련 노동에 운명지어진 테디 보이들은 두개의 약탈하여온 형식들(흑인 리듬 앤 블루스와 귀족적 에드워드안 스타일)을 병치시키는 과장된 스타일을 즐김에 의해, 학교와 직업, 가정의 단조로운 일상들을 가시적으로 고려대상 밖에 두었다. 록음악은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테디 보이들의 핵심으로서 봉사하였던 영국에 이식되어져서, 하나의 흠친 형식 즉 불법적 비행청소년 정체성을 위한 하나의 초점으로서 존재하였으며, 아메리카 즉 서부활극의 환상의 대륙과 갱스터들, 사치, 글래머 그리고 자동차들을 의미하게 되었다.¹²⁾ 초기에 사운드트랙을 제공했던 것은 빅 밴드였으며, Bill Haley, Elvis Presley, Jerry Lee Lewis의 노래가 히트하였지만 테디 보이의 유니폼은 미국의 록 앤 롤 모습을 닮지 않았다.¹³⁾

12) Ibid., pp.49-81.

13) Ted Polhemus, Street Style, London:Thames & Hudson, 1994, pp.33-37.

테디 보이가 채택한 에드워드안 스타일은 원래 1950년 노동자 계급과는 먼 상류 계급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근위대의 젊은 장교들이 그 당시로는 새롭다고 하기 어려운, 영국신사의 황금기였던 에드워드 7세 시대를 추억하게 하는 길고 피트된 록(long, fitted look)으로, 높이 까지 단 단추들, 좁은 어깨, 벨벳 장식 칼라의 긴, 외줄 단추 재킷, 짧고 좁은 바지, Chavet tie, 타이핀, 브로케이드 조끼, 좁은 챙의 보울러, 은 장식의 지팡이로 치장한 것이었다.¹⁴⁾ 그러나, 1952년 초기, Elephant & Castle 같은 런던 지역 노동계급 청년들이 상류 계급의 에드워드 록을 채택한 스타일로 치장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아메리칸 원조인 주티 스타일링과 카우보이 복장의 이상한 모양새를 더하였는데, 그것은 기괴한 혼합이었다.¹⁵⁾ 이러한 귀족 복장이 노동자 계급 청년들에 의해 채택되면서, boot-lace tie, 두꺼운 크레이프 수에드 구두, 착 달라붙는 배수관 모양의 바지, 보다 더 직선적인 거의 허리가 없는 재킷,

14) Farid Chenoune, A History of Men's Fashion, Paris:Flammarion,1993, pp.229-234

15) Ted Polhemus, op. cit., pp.33-36.

moleskin이나 공단 칼라의 재킷, 생생한 색채감이 더하여진 형태로 수정되었다. 초기의 칙칙한 수트는 생생한 초록, 분홍 기타 원색의 수트로 변하고, 헤어스타일 또한 변하여 항상 길게 빗고, 기름을 바르고, 옆 구레나룻과 이마에 착 붙인 곱슬머리 등을 하였다.¹⁶⁾ 대개 다양한 청년 하위문화들은 그들의 소유물과 대상들에 의해 동일시되는데, boot-lace tie 와 벨벳 장식 칼라의 재킷이 테디 보이들의 상징이다.¹⁷⁾

16) Tony Jefferson, "Cultural Responses of the Teds", in S. Hall et al. (eds.),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London : Routledge, 1993, p.85.
17) John Clarke, Stuart Hall, Tony Jefferson & Brian Roberts, op.cit., p.54.

B. 테디보이 스타일의 의미

이차세계대전 이후에도 계급은 사라지기를 거부했지만 계급이 살아지는 방식들, 즉 계급경험이 문화 속에서 표현을 발견하는 형태들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매스미디어의 도래, 가족의 구성, 학교와 노동 기구에서의 변화들, 일과 여가의 상대적 지위의 이동, 이 모든 것이, 계급 경험의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일련의 주변적 담론들을 생산하면서, 노동계급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양극화하는데 기여했다. 청년문화의 발달은 바로 이러한 양극화 과정의 부분으로 보아야 만 하며, 노동계급 청년의 소비력의 상대적 증가와 결과하는 잉여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어진 시장의 창조, 그리고 교육 체계의 변화들을 전후 청년들 사이의 세대의식의 발현에 기여한 요인들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의식은 여전히 일반화된 계급경험 속에 뿌리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통적 형태들과는 다른 어떤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정반대 방식으로 표현되어졌다.¹⁸⁾

18) Dick Hebdige, op.cit., p.74.

Tony Jefferson은 테디 보이 문화에 대하여, 테디 보이들의 "집단의식(sense of group)" 과 그들의 낮거나 "룸펜에 가까운" 지위가 모욕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만든 방식, 이러한 과도한 민감성이 우선적으로 그 집단의 외모와 눈에 띄는 드레스에 부착되어진 방식, 그리고 테디 보이들이 지배문화로부터 빌려 자신들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구성한 요소들의 3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는 상류계급 복장의 "노동자계급화"(proletarianisation)는 단지 스타일적인 화려한 꾸밈이 아니고, 그 집단의 열망과 실재 둘 다를 표현한다고 말한다. 테디 보이들의 집단기질(Group-Mindedness)은 전후 격변과 친족 관계망의 사회적 응집력의 파괴에 대한 반응으로서 부분적으로 임해질 수 있으며, 테디 보이들의 집단생활과 강력한 충성심은 전통적인 슬럼 노동자 계급 가치와 영토에의 강력한 감각의 재확인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하고, 모욕에 대한 그들의 극단적 방식은 대부분이 그들 개인에 대한, 일반적으로 외모 특히 의복에 대한 모욕을 둘러싼 것이라고 하였다.¹⁹⁾

19) Tony Jefferson, op.cit., pp.81-82.

그러면, 그들의 유니폼이 '표현하고' '협상하는' '사회적 실재'란 무엇인가? 의복 같은 문화적 상징을 해독하는(decoding) '문법'은 없지만, 문화적 상징이 추출되어지는 맥락을 살펴본다면, 그러한 문법의 한 측면을 형성하는 하나의 가능한 방식으로, 기존의 노동자 계급사회(기본적으로 도시의 쾌락주의에 반대되는)의 원규(mores)를 벗어나 그들이 이기간 동안 상영된 많은 미국 서부영화들에서 도시의 노름꾼들에 의하여 널리 착용되었던 boot-lace tie 를 채택한 것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테디 보이들을 위한 그것의 상징적 문화적 의미는 그들의 '사회적 열망' 과 사회적 실재의 표현으로서 설명력이 있다. 즉, 멋지게 쾌락주의적으로

- 살기 위한 꺼려지지만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와,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더로 살도록 강제되어지는 그들의 사회적 현실 둘 다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에드워드인 수트의 개인적 수정과 채택은 문화에 대한 테디 보이들의 하나의 공헌이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는 사회적 용어로 바꾸어 놓을 때만이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은 그들의 사회적 실재와 협상하고 표현하는, 즉 그들의 사회적 곤경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방식을 표현하였다. 이 때문에, 의복에의 모욕에 대한 그들의 방식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적이 되었다.²⁰⁾ 상류계급 의상스타일의 테디 보이들에 의한 몰수는, 롬펜에 가까운 실제 경력, 삶의 기회들과, 정장차림으로 갈 곳이 없는 토요일 저녁의 경험사이의 틈을 덮어주며,²¹⁾ 이 유니폼의 선택은, 거친 사회적 반응 (1954년 이 옷의 중고품이 다양한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테드들이 그들의 것으로 넘겨받으면서 상류계급 댄디들은 급속히 입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급속히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원래 이 옷이 상류계급 댄디들의 옷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스타일을 창조하려는 시도에 의해 그에 따른 지위(status)를 사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²²⁾
- 부유한 젊은이를 위하여 1950년대 세빌로에 의해 리바이별된 에드워드인 스타일의 테디 보이의 절취와 변형은 브리콜라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세계의 인습적 표식들인 수트, 칼라와 타이, 짧은 머리 등은, 효율성, 야망, 권위에의 순종같은 원래의 내포가 벗겨지고, '공허한' 물신들 즉 욕망되어지고, 애무되어지고, 자기편에서 가치주어지는 대상으로 변형되었다.²³⁾ 테디 보이 스타일이 구성되어 지는데, 수트 칼라와 타이 구두 등의 기본 요소들이 그들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콤비네이션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전유되어 입혀진 사물이 아니며, 양식화(stylization)의 행위로서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 상류계급의 의복을 수정하고 채택하여 자신들의 스타일로 만든 행위는 원래의 그 복장이 의미하는 사회적 상징성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사회적 용어로 의미화되어지는 것이다. 주기적인 실업과, 비숙련 직업에도 불구하고, 테디 보이들은 소비할 돈을 풍부히 갖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그 돈의 많은 부분이 테디 보이 유니폼인 의복으로 쓰여지게 되는 결정적 중요 요인이기에,²⁴⁾ 그러므로 그것의 사회적 의미는 하류계급도 그 옷을 살 수 있다는 구매력의 과시와, 그에 따른 지위도 살 수 있다는 공허한 의미와,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20) Ibid., pp.81-85.

21) John Clarke, Stuart Hall, Tony Jefferson & Brian Roberts, op.cit., p.48.

22) Tony Jefferson, op.cit., 1993, p.85-86.

23) Dick Hebdige, op.cit., pp.104-105.

24) Tony Jefferson, op.cit., 1993, p.83.

C. 테디보이 스타일의 영향

전후 영국 노동자계급에게는 보다 계급 없고 평등적 사회에의 보상적 기대가 있었지만, 세빌로의 양복점들 즉 영국 상류사회 남성복 스타일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보수적인 권위자들은 에드워드 7세의 황금기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에드워드인으로 알려진 보다 현란한 남성복 라인을 만들어냈다. 이 상류계급의 에드워드인 스타일은 영국의 위대함을 상징하고, 점증하는 미국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검증하는데 기여하였지만, 노

25) Ted Polhemus, op.cit., pp.33-37.

동계급의 관점에서는 평등한 사회에의 약속이 오히려 특권층과 하류계급사회 사이의 경계를 강조하는 멋진 액세서리와 벨벳 장식 칼라의 상류사회 멋쟁이들에 의해 조롱된 것으로 보였다.²⁵⁾

26) Farid Chenoune, op.cit., pp.229-234.

그러나 이 상류계급의 에드워드안 스타일의 테디 보이들에 의한 전유로 인하여, 런던에서 1954년이라는 해는 영국 청년들 사이에 전후 최초의 복장 현상의 출현을 기록한 해이다. 런던은 오랜 동안 남성적 스타일 즉 “신사”와 “덴디”의 개념을 만들어온 수도였으나 초기의 테디 보이들은 노동자 계급 례펜의 언저리를 떠도는 청소년 갱들이었다. 이들 의복의식 비행 청소년들 혹은 노동계급 덴디들은 청년의 “복장적 해방”의 선구자였으며, 청년들이 패션을 유지해 갈 것이라는 실험적 관계의 선구자였다. 테디 보이 스토리는 패션 연감에서 흔히 마주치는 복장적 전유(sartorial appropriation)의 특수한 버전이다.²⁶⁾

27) Ibid., p.234.

에드워드안 스타일의 테디 보이의 절취와 변형은, 비즈니스 세계의 인습적 내포가 벗겨진, 욕망 되어지고, 가치 주어지는 대상으로서의 변형이다. 테디 보이 스타일이 구성되어지면서, 수트 칼라 타이 구두 등의 기본 요소들이 그들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콤비네이션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전유되어 입혀진 사물이 아니며, 양식화(stylization)되어진 것이다. 그들 이전에는 패션 콤비네이션에서의 적극적 변형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에드워드안 수트의 개인적 수정과 채택은 패션문화에 대한 테디 보이들의 하나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28) Zeshu Takamura, op.cit., 1997, p.84.

상류계급 복장의 노동자계급화는 테디 보이 집단의 열망과 실재를 표현한다. 그들은 영국 노동계급의 복장 전통을 거부해버렸으며, 노동계급의 패션 영역으로의 진입에 영향을 주었다. 그들의 의복은 단지 패션을 빌려온 것이 아니고, 주트 수트라는 아메리칸 트렌드 형태를 선조로 하는 잡종 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노동계급의 성원들이 단지 노동복만을 소유할 수 있는 패션을 테디 보이들은 과감하게 깨뜨렸으며, 단순히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 하류계급 덴디즘을 발전시켰다. 그들로 인해, 청소년 시장이 시작되었고 영국 역사상 최초로 노동계급 스타일을 유행시키는 결과에 영향을 가져왔다. 테디 보이 스타일은 영국 최초로 대중음악과 연결 지어진 스트리트 스타일이며, 그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와 스타일의 시대의 개막의 상징이었다.²⁸⁾

29) Ted Polhemus, op.cit., pp.33-37.

테디 보이들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고, 직업과 가족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반항에 힘을 주고, 그들의 본성을 정의하였으며, 스타일적으로, 그들은 시대착오적이지만, 청년 하위문화로서 테디 보이의 존재는 ‘보다 상위 계급’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많은 하류계급 청년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에 현대적 사회환경을 세상에 알리고 반영하는 공헌을 하였다.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 독특한 영국적 복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테디 보이는 영국 청년 하위문화와 뒤이은 많은 스트리트 스타일들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²⁹⁾

문화를 어떤 집단들이 그들의 사회 물질적 존재의 생 재료를 다루는 방법이자 형태이며, 집단의 삶을 의미 있는 모양이나 형태로 실현시키거나 객관화시키는 실천이라

고 볼 때에, 테디 보이 하위문화는 테디 보이들의 독특한 삶의 양식, 의미, 가치들, 사회적 관계 속에 구체화되어있는 관념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테디 보이 스타일은 그들의 삶이 표현하는 그들이 속해있는 물질적 사회적 체계 속의 뚜렷한 모습의 드러냄이며, 동시에 그 성원들에게 그들 체계 밖의 사물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객관화되어진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뒤이어 나타나는 수많은 청년 하위문화 스타일의 발생에 영향력 있는 최초의 창시자로서의 공헌이 있다.

IV. 결론

테디 보이 집단의 상류계급 복장의 노동자계급화는 단지 화려한 치장이 아니고, 그들의 열망과 실재를 표현한다. 테디 보이들의 집단기질은 전후 격변과 사회적 응집력의 파괴에 대한 반응이며, 집단생활과 충성심은 전통적 노동자 계급 가치와 영토에의 감각의 재확인이다. 미국 서부영화 노름꾼들의 boot-lace tie 의 채택이 표현하고 협상하는 사회적 실재는, 기존 노동자 계급사회의 원규(mores)를 벗어나려는 그들의 사회적 열망 과 사회적 실재의 표현이다. 그것은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와 아웃사이더로 강제되어지는 그들의 사회적 현실을 의미한다.

테디 보이 스타일은 상류계급의 복장을 빌려오고 재생하여 새로운 독특한 스타일적 양상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복장의 본래적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였다. 즉, 테디 보이 스타일의 재의미화는 다른 사회적 집단에서 사용하고 만든 복장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수정하고 부가하는 방법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상징적 복장과 외모가 테디 보이 하위문화 맥락에서 통합을 이루며, 하나의 테디 보이 스타일로 결정화(crystallization) 되면서 테디 보이 집단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다. 테디 보이 스타일이 의미화하고, 독특한 양상물로 재조립하여 전유한 복장들은 테디 보이 하위문화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표현하고 공명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본질적으로, 스타일로 선택된 복장들은 그들의 핵심적 관심들과 집합적 자기 이미지 즉 신분 상승 욕구와 현실에 대한 분노와 상응된다. 그러기에 테디 보이 스타일은 그들이 반영하는 중심적 가치들을 볼 수 있는 대상물들이다. 테디 보이 스타일은 하나의 기호를 구성하고, 그 기호는 독특한 형태로 조립되어져, 재위치 되어짐으로써 기존의 상류계급의 에드워드안 룩이 가졌던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가 발해지는 것이다. 사회적 용도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복들은 하나의 문화적 기호이다. 일견 문화 속의 의복의 의미는 고정되게 보이지만, 지배 문화가 전적으로 전유했기 때문이지, 실제 문화 체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부여된 의미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의복에 의미를 부여한 사회적 용도에 따라서 문화적 코드로 배열되어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복이 표현하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사회적으로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현섭, 「서태지 담론」, 서울 : 책이있는 마을, 2001.
- Chenoune, F. A History of Men's Fashion, Paris : Flammarion, 1993.
-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Subcultures, Cultures and Class : A theoretical overview", in S. Hall et al. (eds.),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London : Routledge, 1993.
- De La Haye, Amy. & Dingwall, Cathie.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London :V & M Publications, 1996.
- Hebdige, D. Subculture : the meaning of style, London : Routledge, 1979.
- Jefferson, T. "Cultural Responses of the Teds",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in S. Hall et al. (eds.), London : Routledge, 1993.
- Takamura, Zeshu. Roots of Street Style, Tokyo : Graphic-sha Publishing Co., 1997.
- Polhemus, T. Street Style, London : Thames & Hudson, 1994.

Abstact

Fashion Changes in Subcultural Styles (2)
-Focus on the Teddy Boys Style-

Mee-Kyoung, Yang *

* School of Fashion
Design & Business
Hansung University
Professor

This paper is the second part of a series of the research about the Teddy boy style which is to examine various fashion changes in subcultural styles in 1900s. The main concern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reation and meaning of the Teddy boy style, how it interacted with the elements of class and generation and how the materials needed by the group constructed and appropriated into the visible systematic cultural form of correspondence.

The Teddy Boys are the first recognized members of the British youth culture, which is known as the new Edwardian because of their dress. They had created the concept of the “teenagers,”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sense of a “generation” in the 20th century. The Teds set the style that would be used and modified in the following generations. They adopted the Edwardian style of the upper class, and changed it into their own style by modifying it and adding to it some other elements.

The Teddy boys style is a special version of the sartorial appropriation encountered in the sphere of the fashion history. It actually began immediately after the war by the upper class youth far from the working class neighborhood. In the late 1953, the elitist aura surrounding the Edwardian suit was suddenly shattered. Within just a few months, the Edwardian suit became a source of social anxiety and the focus of a symbolic battle. Although the Edwardian look had initially went back to the upper class root, it became a

symbol of rootlessness. In appropriation of this image, The Teddy boys were also rejecting the sartorial conformism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with its modest tradition. In this respect, the Teds effected the ascent or fall of the working class in the area of fashion. The Teds dress was not a merely borrowed fashion, but was a bastard fashion in the form of American trends, the Zoot suit. At this time members of the working class possessed only work dress for the week and waist suits for the Sunday outings. Teds broke this pattern, and developed the working class dandyism of wearing clothes simply to show off. The results were that they succeeded in opening the teen market, and popularizing a working class style for the first time in British history. The Teds became the first British street style with ties music, and remain as an symbol of the rising of a new age of values and styles.